

새정치 광주시의원 공천 시작부터 ‘시끌’

여성전용 선거구 4곳 확정 반발

남성 후보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6·4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 과정이 시작부터 시끄럽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광역의원(광주시의원) 여성전용 선거구를 확정함에 따라 해당 선거구로 지정된 남성 예비후보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남구 2선거구와 북구 4선거구, 서구 4선거구, 광산 3선거구 등 4곳을 여성전용 시의원 선거구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관위는 애초 협의를 통해 남구 2선거구와 북구 4선거구를 여성 전용 선거구로 결정했지만, 서구와 광산구는 남성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진통 끝에 여론조사를 거쳐 선거구를 최종 결정했다.

공관위는 이날 여성전용 시의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포함해 광역의원 후보 제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뒤늦게 결정된 서구 4선거구와 광산구 3선거구의 남성 예비후보들은 ‘여성 후보 전용구 선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해당 지역구 시의원 예비후보 8명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당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후보자 공모를 받아놓고 뒤늦게 ‘여성전용 시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며, 남성 역차별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오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 전용 선거구 확정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법상 남성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적 문제가 제기돼 잠시 여론조사가 중단됐다”며 “여성전용 선거구 확정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전담 공개하고 공관위에 포함된 국회의원 5명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 예비후보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점에서 여성 후보에 대한 우대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경선과정에 여성 후보에 대한 20% 가산점을 주면서도 또 다시 여성 전용 선거구까지 확정하는 것은 여성 후보에게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 정치신인의 경우 인지도가 낮아 기성 정치인들의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 광역의원 여성 예비후보들은 외부 영입 인물 보다는 기초의원을 지내는 등 기성 정치인이 대부분”이라며

“지역에서 몇 년동안 준비해온 남성 후보들에게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는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시장이 여성 전용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 공관위는 28일부터 선거구별로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면접에 들어갔다. 공관위는 이번 주말까지 예비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마친 뒤 다음주께 ‘컷오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참사 국회도 책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 두 번째)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국회의 책임을 돌아본다”면서 “정치의 무능, 무기력, 무책임이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 두 번째)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국회의 책임을 돌아본다”면서 “정치의 무능, 무기력, 무책임이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알기쉬운 선거법 (11)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당내 경선 낙선자 무소속 출마 못한다

문)정당의 당내 경선은 어떻게 치러지나?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의의=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정당에게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법상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선출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방법=선거의 실시 여부에 따라 이른바 전략공천과 당내 경선으로 크게 나뉜다.

당내 경선은 당원만 참여하는 경선과 당원이 아닌 사람의 참여를 허용하는 국민참여형이 있다.

이때 선거인단의 규모나 당원과 비당원의 참여 비율, 경선기간, 경선일 등 모든 사항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참여형 당내 경선의 선거인 자격=정당이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라 당원만 참여하는 경선과 당원이 아닌 사람의 참여를 허용하는 국민참여형이 있다. 이때 선거인단의 규모나 당원과 비당원의 참여 비율, 경선기간, 경선일 등 모든 사항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19세 미만인 사람 등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비선출직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 초·중·고교 교원, 외국인 등은 당내경선 선거인이 될 수 없다.

◇경선 사무의 선관위 위탁=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 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투표 및 개표사무의 수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나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정당에 해야 한다.

◇경선 낙선자의 입후보 제한=정당이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한 경우 또는 경선 후보자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낙선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당내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제한이 해제돼 낙선자도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있게 된다.

새정치 원내대표 경선 ‘4파전’

이종걸·박영선·노영민·최재성 의원 출사표

새정치민주연합이 28~29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레이스에 들어갔다.

새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후반기 대외 관계를 이끌어갈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 김한길·안철수 투톱 체제의 순환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역학구도의 중대 변수로 될 전망이다.

오는 5월8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은 일단 4파전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당내 계파간 대립점이 본격화될지 여부가 변수다.

김·안 공동대표와 가까운 신주류 그룹에서는 수도권 출신인 4선의 이종걸 의원이 출마했다. 이 의원과 광주의 3선 김동철 의원이 28일 단일화 협상을 한 결과, 김 의원이

이양보를 했다. 3선 가운데는 박영선·노영민·최재성의 이름이 나왔다. 수도권 출신의 박 의원은 소장 경력과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당내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등을 무언으로 두고 있으며 당내 ‘첫 여성 원내대표’를 내세우고 있다.

충북 출신의 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캠프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친노(친노무연) 진영과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연 등이 주요 지지 기반이다. 역시 수도권 출신인 최 의원은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혁신모임’을 이끌고 있다.

이양보를 했다. 3선 가운데는 박영선·노영민·최재성의 이름이 나왔다. 수도권 출신의 박 의원은 소장 경력과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당내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등을 무언으로 두고 있으며 당내 ‘첫 여성 원내대표’를 내세우고 있다.

충북 출신의 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캠프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친노(친노무연) 진영과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연 등이 주요 지지 기반이다. 역시 수도권 출신인 최 의원은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혁신모임’을 이끌고 있다.

새정치 광주시장 경선룰 확정 막바지

일부 시민단체 ‘공정경선’ 서명운동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경선룰 확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공정 경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는 ‘공정 경선’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중앙당을 압박하고 있다.

광주지역 종교계와 일부 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광주시 공정 경선 수요 시민연대’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의 특정후보 지지행위는 광주시민을 불모로 정치개혁을 외치는 반민주적·반시민적 행위”라며 “특정후보를 지지한 국회의원 5명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지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방식 확정과 조속한 시일 내 경선 촉구 ▲공정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당이 최선을 다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29일에는 광주지역 정치·학계를 비롯한 경제계, 문화계 인사 등이 주축이 된 ‘광주정신 바로세우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특정후보 전략공천 음모 반대와 특정후보를 지지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의 지지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전남도당 ‘공천관리위’ 구성 마찰

옛 민주계·새정치측 위원수 이견...30일 재논의키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놓고 옛 민주당 측과 새정치연합 측 간에 마찰을 빚는 등 양측 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등록(5월 15일~16일) 보름을 남겨놓고 후보 선정의 기본인 공관위 구성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28일 “전남시을 국회에서 공관위 구성을 위해 집행위원 회의를 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공관위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공관위 15명

중 민주당 측 10명, 새정치연합 측 5명 배정을 주장해 새정치연합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 9명, 새정치연합 6명의 대안을 내놨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8대 7(위원장이 선임된 측) 안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새정치연합 측은 우선 7대 7로 양측의 균형을 맞추고, 민주당 측 인선 중 양측이 합의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 조정을 거쳐 오는 30일

공관위 구성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김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정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대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니추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판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담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웅벽설치 매 3억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돌변 배 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덕 유 재 관

급히구합니다

- 1)빌딩 : 현금8억,15억,30억 손본 각각 대기중 바로 계약들어옵니다
- 2)상가 주택 : 현금2억보유자3명, 현금5억보유자7명대기하고있습니다
- 3)점포 : 푸에스당1명,갈비집3명,중화요리2명, 패스트1명, 노래방2명등 많은분들이 대기중입니다

다음카페(즐거움부동산세상)를 클릭 해 보세요!

즐거움부동산세상

급매부동산,개발정책,생활법률,취득양도관련 세금유명의료전문가들의 강좌등 다양해요

[급 매]

- 1)총장로 원룸대165㎡ 급매2억7,000(보증1억 월510별도) 월14%대 수익
- 2)롯데백화점인근 모텔 대236㎡건185㎡ 룬25 급매7억월건축비도인도요
- 3)예술의 거리 입구 대188.4㎡ 4층 건물 대2억천보천 별도건장가 4억천

이밖에도 많이요 =맞춤 서비스합니다

[급 임대]

- 1)식당1층33㎡ /66㎡/120㎡ 등(최고요지)급매물 확보중
- 2)다용도및사무실 대로변1층,지하,3층,10층등 평수별,금액별 좋은 매물 다량보유중입니다
- 3)원룸,투룸 =죽임,싸고,깔끔한 매물 다량 보유

부동산이러면 지역,종류,금액 상관 없이 무엇이든지 연락주세요 7일 이내에 [가부방사] 처리하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동부소방사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년6억 수익

모텔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픈,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매가 33억(용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절,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